東亞日報

發行所 京城府花洞一三八番地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 發行兼編輯人 / 印刷人

日本政界의新機運
政友會의分裂

一

波瀾이重疊한 日本政界는 다시 政友會의分裂로 因하야 그波紋이 又一層擴大케되얏다 日本政界에 多年牛耳를執하고 政界에橫暴를極하야 日本政界의實權을一手에壟斷하든 政友會가 맛참내 今日의內訌을 이르키게된것은 兵驕者敗의例를 免치못한것이다 그러고 그分裂의素因은 今日에突發한것이 아니요 멀리 故原敬氏의橫暴한 當時부터 그暗流는發한것이다 다만絶對多數의 旣得利權을 서로擁護키爲하야 苟合妥協의 彌縫을 일삼어왓슬뿐이엇다 그러나 故原敬氏가 一去한後로는 政友會의長點인 黨의統制力이 前에比하야 解弛케된것이 事實이요 또現高橋總裁의 威信이 一絲不亂의 統御를 保持하기에는 너무나 微力한것이 事實이엇다 이로因하야 昨年의高橋內閣이 內部의不統一로 瓦解한後로는 改造非改造의 兩派에 葛藤이 生하얏고또 幹部非幹部의 軋轢反目이 不絶하얏다 그結果政友會는 前後三次의 政機를 逸하얏고 따라서 加藤山本淸浦의 三代超然內閣이 繼續한것이다

二

그러면 政友會의 今番分裂이 다만 現淸浦內閣에 對한 黨議의 不一致로 因하야 突發함이 아니요 實로 宿年의禍根이 이미 醞釀한지가 오래이엇다 그러면 엇지하야 그內部의分裂이 오늘날에와서야 爆發하얏는가 하면 이는 大勢의使然과 또 이大勢에 乘하야 騎虎의勢로 나아가든 兩派의氣勢가 다시轉回하기가 어렵게된 까닭이엇다 高橋總裁의 縷縷數千言의 聲明은 勿論 憲政의擁護를 爲하야 現內閣否認의 最後斷案에 至한것이라 하엿스나 從來政友會의 取한 態度에 照하면 모로혀 改革派의 主張인 是々非々主義가 그本領을 發하는데에는 더 率直한것갓다

三

要컨대 政友會의分裂은 純理에 基礎한 主義政綱의 進退라하는것보다 도로혀 政黨者流의 常套手段인 利害打算의 集合離散이라고 看做함이 妥當할것이다 卽幹部派는 純理에假하야 名利를取하엿고 此에反한 分離派는 現實에妥協하야 實利를取하엿슬뿐이다 다만 그名利와實利가 어느便이 더 有利할는지는 모르나 兩者가 共히 功利的見地에 서잇는것만은 明瞭한事實이다 如何間不自然한多數를 擁有하고 日本政界의進展을 沮害하든 政友會는 今番의分裂로 因하야 日本政界에 多少의新機運을 促進하얏다 이것이 大局觀으로본 例外의成果라 아니할수업다

四

이미 革新政三黨의 現內閣에對한 包括的不信任案을 提出한다는說이 有하고 따라서 內閣의方針은 議會解散의 最後結論을 하는바이나 其他一般的政綱에 對하야는 避치못하리라 하는以上 日本政界의將來는 頗히新機運이 活躍할것을 豫測치 안을수업다 方今 第二의憲政擁護運動이 喧傳하는 오늘날 現內閣反對의各黨이 ... 步調가一致케될것이오 ... 今後의 迂曲折은 頗히世人의 興味를 促할바이다 勿論現內閣否認의 一點에關하야는 各黨이 共히 共鳴할바 ... 日本政界는 今에刷新의 機運이 到來할것을 觀測할뿐이다

英政局의前途如何
勞働黨又復不利乎

政界一般의觀測에依하면 勞働黨의提出한政府不信任案은 來二十一日下院을通過하야 保守黨政府가倒하고 勞働黨政府가 出現하리라고 觀測하는者가多하나 政界는最近全然局面을轉化한 形勢를 生하게되야 前途의發展이 殆히豫測키難한바 此는昨年末總選擧當時 勞働黨候補者를破하고 當選한五十名의自由黨議員은 首領『아스키스』氏가 勞働黨提出의 政府不信任案에贊成投票를 하고자하는政策에 對하야 反旗를擧함에至한것이라 此等의自由黨議員은 目下內密히會合하야 二十一日의不信任案에對한投票를 再次黨議에 附하기를『아스키스』氏에게要求할可否를研究中인데 萬若此等의反勞働自由黨員이 投票에加하기를拒絶하면 政府는 失敗하게될는지도 未知하겟스며 更히勞働黨에不利될것은 鐵道機關手가特히 同盟罷業을 始코자하는形勢이라 勞働黨院內幹事長은 勞働黨議員에 對하야 此際에罷業問題를爲하야 倫敦을去함을中止하라고 警告를發하엿는데 此理由는 一次倫敦을去하면 二十一日의投票日外지 倫敦에歸還할수가업슴으로 其結果勞働黨에重大한影響을及케할수잇슴이라 若又鐵道機關手가 實際로威嚇하는同盟罷業을 實行하면 産業危機의際에 政府를更迭하는것은不可하니 卽下院에서 政府의豫期치안은後援者를見하게될는지 未知인 外에 勞働黨은 鐵道罷業이 勃發하면 單히政治的에 重大한反動을及케하야 自黨이 政權을掌握치 못할뿐더러 難處한問題에 遭하게될것으로 目下의 形勢에 對하야 大端히 苦心하는中이더라(倫敦十七日發)

移民法通過確實

日米紳士協約에 代하고자하는 新移民法案은 國務省의意嚮如何에 不拘하고 議會를 一氣로 通過할模樣이 確實하다더라(華府十七日發)

主力艦制限會議
華府會議未參加國에限하야

國際聯盟에서는 來二月中旬을期하야 『케네바』에서 主力艦을가진 聯盟關係의諸國及勞農露國으로부터成한 海軍主力艦制限會議를 開催하기로 決定하얏는데 右會議의目的은 華盛頓會議의 主力艦制限條約에 加入하지아니한 國의主力艦을 制限할 大體의方針을 協定함에 在하다더라(케네바十七日發)

露國政界의分裂

露國政界의反對黨은 分裂하야 二個의極端分子가 生하엿는데 其一은 新經濟政策을 抑壓하는事를 目的으로하고 他의一은 外國人과의 通商擴張을 主張하는데 共產黨議는 右兩分子를 다 吸收하고 彼等의 非볼쉐비키的態度는 黨派의節度를 破하는 者라고 하더라(莫斯科十九日發)

沿海共產黨大會
二月五日에開催코자準備中

沿海縣共產黨大會는 來二月五日부터 開催코자 目下此의準備에 忙殺中인데 各郡支部會는 大會以前에 支部會를 開催하기로하야 『하바롭스크』方面은 一月二十五日, 『니코라예흐스크』方面은 二月一日, 『스파스카야』方面은 一月二十日, 『포셋트』方面은 二月十日, 海蔘威市는 二月十日及十四日로써 開會할터이라더라(海蔘威十八日發)

金法賠償大反對
東三省商會議의聲明

北京政府가 佛蘭西의 借款을 金法으로 賠償하는案을 立하얏슴에 對하야 東三省商會議는 斷然是를承認치안코 政府는 民意에從함이 至當하다고 하야 反對를 聲明하엿더라(奉天十九日發)

外蒙古에勞農政治

勞農政府는 庫倫을 中心으로 勞農政治를 布하고 外蒙一帶의 地를 該政府의 管理下에 置코자하는 野望이 有함은 屢次報道한바이어니와 彼等이 至急勢力範圍內에 置코자하는 地域은 土謝圖汗의 所轄二十旗 三音諾顏의 管下十四旗 車臣汗旗下二十三旗로서 彼等은 蒙古人中의 親露派로하여금 選擧資格等에 就하야 調査케하는 同時에 勞農政治의 良政인 所以를 宣傳케한다더라(奉天十九日發)

問題의財政總長
王氏又不就任

王克敏氏는 百方의 勸說에 不拘하고 尙今財政總長에 就任치아니함으로 孫總理는 他方面으로 타인을 適任者를 選定코자하는 意志가 有하나 曹大總統及其周圍의 人은 一向冷淡하야 援助할 氣色이 無하더라(北京十八日發)

內蒙에省政實施와
各王의反對運動激烈

內蒙古一帶를 二省에 分하고 該地方에 省政을 布하야 政府의 收入을 增加코자하는 計劃은 昨春부터 北京政府의 方針이엇스나 各蒙古王은 人種的關係及中華民國創立當時의 明文을 摘出하고 極力反對하얏슴으로 今日外지 遂行치 못하고 잇섯스나 最近에 至하야 曹大總統은 省政實施를 斷行할 意思가 有하야 此의 具體的方法을 研究中이라는 報가 傳하얏슴으로 內蒙各王의 憤慨가 激烈하야 來二月二十日을 期하야 又哈爾賓에 四十八將相이 集合하고 一致하야 反對運動을 起하리라더라(哈爾賓十九日發)

兵機工廠擴張

奉天兵機工廠은 奉直戰爭以來 兵器彈藥의 改造擴張을 計劃中인데 楊督辦은 三年計劃으로 野砲五百門 速射砲百門 砲彈二萬五千發 小銃彈二百萬發 小銃一萬五千挺을 製造한다고 하엿더라(奉天電)

軍事施政協議

張作霖氏는 十九日擧行의 二男結婚式終了後 各地에서 參集한 文武官과 各種軍事施政等에 關하야 協議會를 開하리라더라(奉天十九日發)

現閣彈劾質問書
尾崎氏에依하야提出決定

尾崎行雄氏는 議會再開의 劈頭에 國務大權의 發動과 內閣組織에 關하야 槪要左의 意味의 質問書를 議會에 提出하리라더라 第一, 노現內閣은 宮內大臣, 內大臣과 如한 宮內官으로하야금 政治에 關與케하얏스며 更히 宮中府中의 區別을 混亂하야 累를 皇室에 及케하는 憂慮가 無하다고할가하고 宮內官吏의 政治干涉을 攻擊하고 次에 牧野宮相의 非違를 擧하야 淸浦內閣은 右事實을 調査糾彈할 意志가 無한가 質問하고 繼續하야 平田內大臣이 其身은 退하야 逗子에 在하야 瀆職의 誹謗으로 受하면서 內閣更迭마다 此에 干涉하는 僭越不謹愼을 擧하야 如斯한 意見을 根絶함은 現內閣의 責任이라고 追迫하고 元老의 傲慢無禮를 指摘하야 其廢止를 絶叫하고 特히 淸浦子가 組閣을 研究會에 一任하고 研究會는 快諾하야 此에 着手하엿슴은 實로 政治의 根源을 誤한것이라하야 大權移讓의 非違를 論難하야 縷々數千言을 述하엿더라(東京電)

尾崎行雄 ... 와如한 此際에 政友會와의 協定을 願치안코 脫黨派와 提携하야 革新俱樂部에 入한者等과 提携하야 政友會에 復歸하고 頻々히 淸浦首相에 建策하는듯하더라(東京電)

『新政黨』
脫會者의新組織

脫黨者等은 十九日黨名을 新政黨이라고 發表하엿더라(東京電)

制度는合議制

新政黨의 方針은 大히 人心을 收攬할 必要가 有한 關係上 自由主義를 標榜하야 黨員의 歡心을 사기에 努力할것은 當然한바라 其結果役員과 如한것도 公選을 主義로하고 又黨의 最高幹部도 絶對로 專制政治를 避하고 可及的合議制로 하고 黨主도 別로 置치안코 四總務의 合議制度로 될듯하다더라(東京電)

次期內閣은
憲政會에서自期

憲政會에서는 政友會의 分裂에 因하야 來總選擧에서 一躍多數黨이 되야 淸浦內閣倒壞後의 政權을 必히 自黨에 掌握하고자 得意揚々中이나 革新俱樂部는 此를 豫防하고 政友會와 革新俱樂部와 合同하야 淸浦內閣倒壞後의 政權을 政革兩派에서 占코자 旣히 暗中飛躍을 試한다더라(東京電)

政友分裂과
憲政會의影響

政友會의 分裂의 作用이 新政黨과 政府及研究會間에 三角關係를 生케하는 同時에 憲政會에도 亦是波 ...

新黨加入
百五十名突破

政友會를 脫하고 新政黨에 加入하는 議員은 十八日에 旣히 脫黨을 聲明한者가 七十四名, 十九日에 聲明한者가 三十九名 計百十三名 其他 中橋, 元田, 床次三長老及田中隆三, 根本正兩氏를 加하면 百十八名에 及하엿스며 其外에 書信으로서 脫黨을 通告한者가 三十五名에 達할터이요 又脫黨의 希望이 有하나 未確定이 三名으로 新黨派의 所言에 依하면 大勢가 玆에 至하면 更히 約二十名의 加入者를 見하야 新政黨은 百八十名에 及하리라고 大樂觀이라더라(東京電)

政友結束決議

政友會에서는 十九日午前十一時부터 全國各道府縣支部長代議士 ...

淸浦政府
對新政黨好意

新政黨의 政綱政策은 아즉 不明한바 果然政友會의 傳統的政策을 踏襲할는지 與否는 疑問이나 若脫黨派가 政友會의 傳統的政策을 踏襲한다하면 政府는 此로써 政府에 在하야는 非常히 有利한것이라 觀察하는中이니 卽穩健政策은 政友會本來의 傳統的政策이니 今回의 脫黨派가 擁護激成한 政界의 變化에 反對하야 發生된것인즉 新政黨은 반드시 淸浦內閣에 絶對的反對는 하지아니할지오 從하야 恰似히 山本內閣에 對하야 憲政會가 自然與黨의 態度를 取하얏슴과 同樣으로 新政黨은 淸浦內閣에 對하야 厚意를 가질것은 當然한 事이라 打算하야 新政黨이 一名이라도 多數가되기를 願하야 暗々裡에 脫黨派에게 便宜를 與하는것은 事實이라더라(東京電)

... 의協議會를開하고 野田卯太郎氏以下六十餘名이 出席, 岩崎幹事, 少川總務, 橫田總務及武藤黨務委員長이 前後하야 黨內分立을 見하기에 至한 經過及高橋總裁의 決意한바를 披瀝하고 全國各支部의 結束을 促한바가 有하얏는데 此에 對하야 佐藤(德島)東(北海道)富安(福岡)의 三氏를 爲始하야 各部代議員으로부터 各支部가 結束하야 勇往邁進하자는 決議를 하고 激勵의 意味에서 本部에 此를 進言하기로하야 總裁의 指示한 方針에 悲員一致로 總裁를 推戴하고 邁進하기로 決하고 午後一時散會하엿다더라(東京電)

普選精査附託

普選案은 十八日樞密院에 諮詢되엿는데 同案은 重要法案임으로 精査委員會를 設置하고 附託審議하기로 되엿는바 其初會議를 來週中에 開會하고 審議方針을 定할터이라더라(東京電)

憲政擁護協議

政,憲,革三派領袖連의 憲政擁護運動에 關하는 協議會는 二十日午後八時부터 帝國『호텔』에서 開會하기로 決定하엿더라(東京電)

在外正貨拂下
可能聲明

大藏省에서는 二十一日午後三時頃 在外正貨中의 拂下可能分에 關한 聲明을 할터이라더라(東京電)

三港中旬貿易
一切入超

一月中旬三港貿易은 輸出四百七十一萬一千圓 輸入五千八百九十六萬二千圓으로 結局二千四百二十五萬一千圓의 入超를 示하엿는데 其三港別은 左와 如하더라(東京電)

橫濱 輸出七千三百九十二萬九千圓 輸入一千四百九十七萬八千圓 結局入超百四萬八千圓

神戶 輸出一千百七十二萬七千圓 輸入三千四百三十三萬三千圓 結局入超二千二百六十萬六千圓

大阪 輸出九百五萬五千圓 輸入九百六十五萬一千圓 結局入超五十九萬六千圓

鮮銀整理는一圓
配當은二分減

鮮銀整理와 共히 同行의 整理를 斷行하기로 決定하야 目下大藏省에서 此의 關한 調査立案을 急速히 하는中인것은 旣報와 如하거니와 鮮銀監督權은 同行의 整理實行과 同時即二月中부터 大藏省에 移管하야 同省에서 整理案을 作成하야 充分한 整理를 行하기로 朝鮮總督府와 大藏省兩者의 諒解가 成立되야 目下大藏省에서는 今期의 配當을 六分(二分減)으로 減配하고 且大藏省으로부터 相當한 整理資金을 融通하야 此等에 依하야 得한 資金으로 二月總會外지에 整理案을 急速히하는中인바 該整理實行과 同時에 美濃部總裁를 更迭케하기로 決定하얏다더라(東京電)

普校近況
總督府調査

總督府調査에 依하면 大正十二年五月末日現在의 普通學校數는 左表와 如하더라

官立

道名	學校數	學級數	合計
京畿	二	[illegible]	[illegible]
平安南	一	[illegible]	[illegible]
計	三	[illegible]	一,一二八

公立

道名	學校數	學級數	計
京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私立學校를 並計하야 合計

學校數 一,〇〇七校
學級數 五,〇二六級
男生數 二七二,九九四名
女生數 四五,二七〇名
生徒合計 三一七,八六四名
敎員 五,七四七名

右表에 依하면 目下就學兒童數는 三十二萬에 達하고 學校數는 一千七校에 達하야 百餘校 二人에 不過하든 十餘年前에 比하면 實로 隔世의 感이 不無하나 아직도 學齡兒童百七十萬을 基礎로하고 생각할時는 아직前途遼遠의 感이 잇더라

財政調査會의
目的은財源調査

朝鮮의 國稅制度는 國庫財政上必要를 따러서 隨時制定하얏던것이며 ... 歲出은 增加하고 民力은 不比하야 新財源이 必要한 此時에 ... 다시 新稅를 賦課하야 오는것이다 그럼으로 一般負擔이 過重하다 ...

國稅制度

國稅制度는 沿革的으로 形便이엇다 爲先現行의 ... 地稅(市街地稅), 關稅, 酒稅, 煙草稅, 朝鮮銀行券發行稅, 砂糖消費稅, 印紙稅, 法人所得稅, 取引所稅等이 創設되엿다 ...

米豆大豆檢査狀況

大正十二年八月中의 各道米豆檢査數 ...

現行國稅

... 國稅는 前述과 ... 二千六十餘萬圓 ...

東拓理事後任決定

東拓理事後任은 ... 川上東拓理事의 後任은 ... 知事白川... 決定하엿더라

醫師藥劑師試驗

第一回醫師試驗及藥劑師試驗은 四月一日부터 ... (朝鮮은京城)에서 施行한다는데 ... 出願期日은 二月十五日外지라더라(東京電)

◇東亞漫畫 投稿歡迎 薄謝進星
『奇怪한各地方의流行競爭』

負擔은누가하느냐

◇十三年度의 豫算面을보면 國境方面의 警備員宿所新築費로 七萬五千圓을 計上하엿는데 當局의 說明이란것을 보면 原來十五萬圓을 計上하엿던것이 財政緊縮의 影響으로 半減이되엿스며 그半減된 七萬五千圓은 宿所十個所의 新築費가 될터이라고 한다

◇그러면 一個所의 新築費가 七千五百圓式인 計算이다 그리고 建築할 屋舍는 事務所와 宿直室과 主任住宅과 警官住宅의 네가지 用途를 가진 建築物이며 그周圍에는 約一尺되게의 土墀를 設하는것이라한다 ◇이와 가치計算하면 얼핏보기에 매우 緊縮된 豫算가치 보이나 實狀을 仔細히 檢討하면 一宿所에 七千五百圓이란 것은 좀 誇大하게 豫算한 것이다 왜? 그理由는 차々 말하여보겟다

◇警備員宿所라야 國境方面에 잇는 警備員宿所에 事務室이 몃間 되며 宿直室은 두채이다 그러나 그亦是 크지 아니할것이요 ...

消息

▲李堈公殿下는 皇太子殿下嘉禮參列次 二十日午前十時發列車로 東上 ▲篠田李王職次官 二十一日午前十時發列車로 渡東 ▲明大間官新年會는 再昨午後五時市內敦義洞明月館에서 開催되엿더라

◇橫說竪說

◇忠北淸州에서는, 保校敎員八千 ... ◇ ... 『淸州』가아니라 『淸酒』 ...

◇綠林出身인 張作霖의 次子婚禮에는, 參賀次로 集合한 大官이 一百五十名, 祝賀卜物의 價格이 四十萬圓이라고, 生計困難으로「家產을 放賣하는」 前淸皇室과對比하야 『感慨가不無』

◇日本은 米國金融市場에서, 一億弗의國債를 募集할터인데, 米國資本家들은 『相當한典當이 업스면 안된다』

◇朝鮮鐵道의 從業員의 게도, 司法警察權을 주게되야, 그 準備로 從業員의 게 法律智識을 너어주기로 準備中이라 한다 『文化警察』의 朝鮮에서는, 『法律智識』보다 『軍刀』의 準備와 『拔劍』의 熟練이 第一必要

戀愛의書簡集 眞珠의품

愛人에게보내는 꼿봉아리갓흔 書簡!

피여오르는 百合이, 그 이벌로 곱드냐? 異性이의 사랑은 그보다 더곱고 흔니라。水平線이 멀니서 그리는 多情이, 과연 곱고 다냐? 愛人 사이의 사랑은, 그보다도 더 곱느니라。이 冊은 그갓치 아름답고 보드러운 愛人사이의 사랑을 基調로하야, 힘잇게 쓰고 아름답게 쓴 戀愛書簡集이다。

內容一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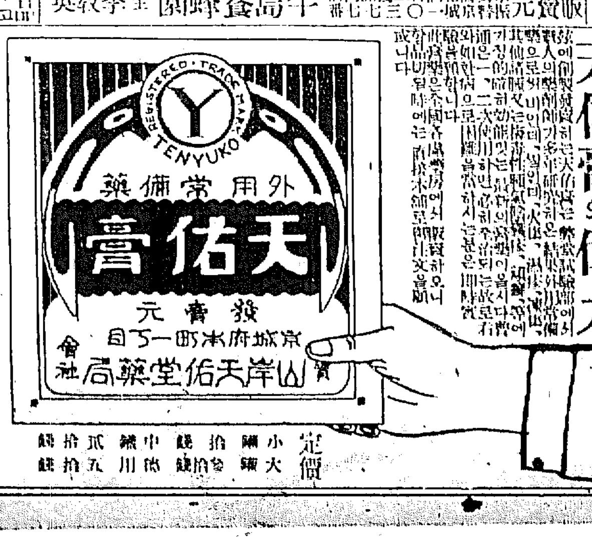
發行兼 印刷 ... 京城府 ... 博文書館 振替京城二〇三三番

金億氏作 詩集 해파리의노래 四六版美裝百六十餘頁 定價金八十錢 送料十一錢

發行總販賣元 京城府堅志洞六〇 朝鮮圖書株式會社 振替京城八三五五番

舊歲暮贈答品은 上等 眞淸 (진)(꿀) 蜜 上品保證 販賣元 半島養蜂園 主 李敎英 京城府 ...

天佑膏의偉力



定價 小 大

內職 月收三十圓 容易有利 代理店大募集

釜山府草梁 百濟病院 入院隨意 最新式엑쓰光線設備 電話一六二七番

ClibPDF - www.fastio.com

龍山署의 突然活動

동숭동가택수색의상보
사실은아모일도업섯다

독립단이들어왓느니무엇이엇지하야 최근시내각경찰서에서는 자못긴장한 빗을보히든바 룡산경찰서에서는 무슨소식을 들엇는지 지난십팔일 오전여섯시경에여러가지로 변장한순사와 형사들이 각각무긔를 가지고근삼십명이나 한떼가되야 시내동숭동(東崇洞)일백삼십번디의최봉렬(崔鳳烈)의하숙옥에이르러집안사람들을모조리결박하고 가택수색을하얏다함은 이어니와(작일룡산헌병대라함은 경찰서의착오)사실의내용은 뎐대비밀에부침으로 자세히 알수업스나 혐의자로 잡혀엿다가나온사람의말과 모처에서 탐문한바를종합하야보면 무긔를 가진다수한독립단원들이 시내에 숨어잇다는소문을 들엇는차에 또다시권긔동중에 숨엇다는 밀고가들어와서 그가치 대활동을개시한것이라하며 룡산서에서는 그날새벽에동숭동이외에여러방면으로활동하야 다수한 혐의자를인치한모양인데과연독립단이시내에들어와는지아니와는지는아직발표할수가업거니와권긔동중에는 아모러한 흔적이업스며 따라서 아모상관업는 집안사람만 놀래이고 헛소동만한것은 분명하다더라

負傷、破損

피해자편에서
배상청구를한다고

이가치 수색하는통에 그집어먼은바른쪽 눈통이가 푸르기까지 어더마젓고 학생의 책상한개도 상하얏고 상자안에두엇든 안경한개도 부서지고 그중혐의자로 못잡혀갓든김명섭(金明燮)(三)의 의필두금시계도 산산히 깨여지러보내엿다더라

檢束된金明燮
당일오후에방면

고학생들의 물품을 너허두엇든 궤짝한개도 파손되얏는데 그집주인은 배상금을 바뎌내이겟다고매우분개하더라 이가치 수색하여본결과 아모별일이업슴으로 그들은 무색한생각이낫던지 결박하엿든 사람들을다ㅣ풀어놋코 다만그전날밤(십칠일)에새로그집에들게된 학생 경북도사람김명섭한명만 잡아가고 그전김상옥(金相玉)사건이나 잇지아니하엿느냐? 최근시내각처의경찰서에서 며칠동안을 하는말을아는냐?는등심문을 계속하다가 그날오후두시쯤하야 그냥을돌려보내엿다더라

警官의亂暴

분개하는학생들

룡산경찰서에서 영터리업는 일로(동숭동에숨엇다는사실만)를 밋고 아모까닭업는 하숙옥에가서 대수색을하야다향은 별항과 갓거니와 수색한는수자이 너무도란폭하얏다하야 그곳사람들은 비상히분개하는데 당시의광경을 대강듯건대 그집은원래하숙옥임으로 학생들이 만히류숙하얏든바 아즉날이 새이지아니하얏슴으로 모다 잠이들엇슬때에 돌연히다수한사람이 룩혈포를들어와서 대문을 열어준듯당총 집행이끝든 무긔를가지고 들어와서한두사람은 먼저당을넘어들어와 대문을 열어준듯 하다함)닷자곳자로 방을뒤지어 옷을벗고잔는학생들을 그냥 버슨채로 룩혈포를견우면서 곁밧하야 밧게서워놋코 옷을준대야 겨리에싸워놋키도하고 목에걸거나 허리에튤린것는등 자미업는종류하얏슬뿐만아니라 안방에들어가서는 자리옷만 걸친녀학생(七)에게 달려들어 역시 륙혈포로 위협하면서 키잇든면등오지서 갓고 결박하야(나중녀학생의 어머니가 다시불러갓다)학생의어머니도 의학생과가치 밧게쉬워놋코 모자가업느냐고 머리에씨워놋코 불리 며지아니하얏더라

注意人物警戒

일본에는절대로가지못한다

섭정궁뎐하(攝政宮殿下)의 가례날이갓가워옴으로 이때를 타서 사회주의자나 독립단중에서 일본에들어가 무슨일이잇슬가하야 당국에서는 이를 심히주의를하는중이오 주의하야 엄중히감시하든바 안동현(安東縣)경찰부서 흑표(黑表)에서 상면당(上面堂)으로부터 면협의회를소집하야 운동에든경비 지출방법을세우고 방가잇서서 독립운동중 유명한 의원인 송병직(宋秉直)강수작(姜壽作)이 강경면에서는 판상면당(坂上面長)으로부터 면협의회를소집하야 운동에든경비 지출방법 의논하는중에 그전부터숙데로잇서서 당국에서도 만흔양해가잇고 면민에게가지 못 로 주의를하는바이므로 일본에도 크게희망하는바임으로 그의의인물을 철뎌로 단속하라고 종독부에서 각디경찰서에통첩을 하얏다 하는데 실현은 그다지어렵지 안켓다고일반은 추측한다더라(강경)

重大犯三名逮捕로

동경경시텽에서는매우안심
섭정가례와조선인엄중감시

경시텽은벌고등과(警視廳特別高等課)와 내선계(內鮮係)에서는 삼명을 테포하야 십칠일에 조선경무국에 이십륙일에게 행할가례는 중대사건발발이래 조선경무국과협력하야 그사건의련루자가 무슨일을할가하야 상해방면에 조선사람을보내여 엄중히 정탐하든중이신데 무슨일이 잇슬지 알수업슴으로 계속하야 조선인을 엄중감시한다더라(동경면보)

요코하마에서는 지나게되얏다고하나 또 무슨일이 잇슬지 알수업슴으로 섭(橫濱山生)의 중촌모(中村某)와 횡빈출생 모단원두명과 횡빈출생사한결과 밀히 사탐을보내여 엄중히 조사

郡廳移轉

세무서설치로

충남강경(忠南江景)은 비로부터 조선삼대시장의 하나이라고 널리 알려오든곳으로 유명한 강경평야를압에두고 금강유역을 엽헤끼여서 현재인구의호구 기타 인구로 수륙교통이 집산기타 무엇으로하든지 충청남북에 데일인 주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으로 겨우 지명면(指定面)이라는명칭을 갓게됨은당디의디위 또는장래발전상 큰유감이된다는바 이에 론산군텅을 이곳에 옴기게하는동시에 활금명(黃金町)에잇는 면유건물(面有建物)과 그곳부디(敷地)(前有建物)를무료로기부할 商業學校跡地)를무료로귀부할 터이며 겸하야 세무서까지도설치코자 방금개회중인 충남도평의원회에서는 도평의원 송병직

學年延長問題
소림면민대회

녕변군소림공립보통학교(寧邊少林公立普通學校)오륙학년 면장문데에 대하야 작년여름에당국에 향해를 어더 귀부금을 모집하야 교실까지 임의건축하엿는바 작년십이월 녕변학교평의회에서 당국에서는 경비관계로소림공립보통학교 오륙학년면장은실시할수업다고하매 그 소림면과 학교평의원들은 당국에대하야 언제는 교실만 지어노흐면 면장하야 주겟다하더니 지금교실은 다 지어노흐나 예산부족이니 경비문데이니하며 면장실시를 불능하다함은 무슨리유이냐고 강경한질문이잇섯스며 그후소림면민유지제씨의 대방면으로 활동한결과 드대여 지난십삼일 오후에 소림면민대회를 개최하고 오륙학년면장기성회까지 조

직하엿는데 그 결과는 아즉 모른다더라(강경)

보사에 취소를요구하얏스나 이에불응함으로 편집겸발행인 진용희(編輯兼發行人金容熙)지국당김병옥(支局長金炳玉)량씨를 상대로 해주디방법원 재녕지텽검사국(海州地方法院 載寧支廳檢事局)에명예훼손으로 고소를뎨기하엿슨데 검사국 에서는 그간심리를마치고 지나간 십오일하오두시에계판사(桂判事)안뎐검사(安田檢事) 김서긔(金書記)의립회하에공판을열고 판사로부터 사실심문이잇슨후 검사는사실무간에 명예훼손죄(事實有無間名譽毀損罪)로 형법뎨이백삼십조에 해당한즉 김용희씨는 징역륙개월 김병옥씨는징역팔개월의구형을 하엿는데 지난십칠일에다시 개뎡하고 결

馬山大火

손해사만여원

다섯집을태이어 지난십구일 오전두시오십분 마산부상남동(馬山府上南洞)구십이번디강뎐(岡田)이라는일본사람의집에 돌연큰불이이러나 다수한경관과 소방조가 출동하야 고요하든 밤거리는 일시혼돈상태를이루엇는데 세시 동안을계속하야 맹렬히타는 불꼿은도합사만여원의 손해를 내여다하며 그중에는리인언(李仁彦)의운송뎜(運送店)과김성칠(金成七)의유긔뎜(鍮器店)을전소하얏고곽학이(郭鶴伊)의 집과 박찬영(朴贊永)의집까지전소하얏는데 원인은방금 조사중이라더라(마산)

직한후 적극뎍으로 운동을개시할터이라는데 진정위원으로 명룡승 조승권(明龍昇 趙昇均)량씨를 선뎡하여도뎡당국에 교섭케하리라더라(녕변)

安岳强盜頻頻
촌민은단잠을못잔다

황해도안악군(黃海道安岳郡)에근일강도가 빈빈하야 일반농민들은 잠을이루지못하는 중이데 권일에도안악면에강도가침입하야소관경찰서에서는수색에골몰중이라는바 거긔룩일밤두시경에

용회씨는 벌금이백오십원 김병옥씨는 징역륙개월에언도 되얏는바 량피고는즉시공소하얏다더라(재녕)

朝日筆禍事件

재녕지국당김씨는
징역륙개월에

조선일보사 재녕지국(朝鮮日報社載寧支局)에서 작년십일월삼십일에재녕경찰서에근무하는형사순사안재익(安在益)이가재녕읍신대리(載寧邑新垈里)엇던녀자를강간하려다가 뜻을 이루지못하엿다는 긔사를 본사에통신하야 게재케하엿던바 안형사는사실무부인한는 동시에 조선일

◇一胎十二兒

봉텬됴남현에

조남현북방와방(洮南縣北方瓦房)에사는 조련등(趙連登)의안해는 금년 사십삼세인대 아해를배인지 사년만에 지난 열두시간 동안이나 산고를한 결과 열두명의아이를 나엇다 (봉텬면보)

場內의勇將

일등박유돈군

평양에서 두번재열리는 대동강「스켓트」대회는 예뎡과가치 지난십구일 오전열시부터 련광뎡(練光亭)아래에서 열리엇다 공중소래를 군호삼아 륙십여명의 용장한선수의 입장식이 잇슨후 십여종류의 경기를 차레로하야 나갈새 어름우에 싯그러키 다라나는선수의재조는 번개가치 싸르고 귀신가치묘하야 보는사람의가슴을 상쾌하게하엿다 오후에는 일주『삼백야드』되는곳의 이십주 경주를하엿는데 一等朴唯敦 二等安永信 三等張炳賛

세사람에게 각각상품을주고 오천부는 맛치엇다

練光亭下의壯觀

데이회평양『스켓트』대회
수만관중으로성황을일워

박유돈군 (「스켓트」대회의일등)

대동강 『스켓트』대회는 예뎡과가치 지난십구일 오전열시부터 련광뎡아래에서 열리엇다 공빙산운동회에서도 일등상을바든사람들이라하며 또만선경기회(滿鮮競技會)에도출전하고자 선수권을 어덧다하며 이십오주일등에당선된 김영근군은 당년십오세의 어린학생으로 다른선수보다 두바퀴나안서들어 환영을바덧다 그리고 삼십주에최우등한 박유돈군은 현재광성고등보통학교(光成高普)삼학년이요 하등장병찬군은 숭실중학교(崇實中學)생도이요삼등긔원호군은 평양고등보통학교생도이라한다

觀衆無慮數萬

대성황리에종료

당일일귀는 매우온화하야 대동강의 어름이알볶으로 빙상운동 류행매우몹편하야 되도록 선수와 운동회원만 드리고 일반관람자는 어름에 드리지아니하얏스나 원래평양성내의 인긔를끌면 대회이라 시시각각으로 느는관객은 무려수만명이되여 련광뎡일대는 사람으로 청홍사하얏스며 대회는무사히맛치엇더라

원흥군은 평양 고등보통학교생

十二演士의熱辯

인천에처음되는웅변대회
박증사지성황중에마치어

인천 한용단(漢勇團)주최로 예뎡대로 재작십구일 오후칠시부터 배재악대(培材樂隊)의 주악비롯하야 개회되엿는데 눈비에 험악하여진 치운밤이엇만 장내에는 뷔인틈이업시 청각권부터 물려오는 드되여 만장성황 을이루엇다 리길용(李吉用)씨의 개회사와 경성우리 구락부(俱樂部)의 현악주가 잇고 이우(以友)구락부대표의 김현식(金炫植)씨의 「一致團結」이란 연데를 비롯하야조선물산소비조합대표김수호(金壽玉)씨와인천배재학생대표의정태희(鄭泰熙)씨의『제르코-칭년회대표의 배청국(裵正國)리비도(李比道)량씨가젊음을토하매그대표정수일(鄭秀日) 리시국(李時國)한창근(韓昌根)장긔진(張基鎭)한용단 「입어」희망대표악우회(樂友會)의...

◇亞細亞沿海에大地震!

◇일월이십구일로삼십일사이에 이태리디진학자의의태단한예언◇

이태리(伊太利)조각가(彫刻家)로디진방면연구로 유명한라휘아이에「웬단지」씨는일월이십구일로부터 삼십일까지 아세아면해(亞細亞沿海)에 대디진이잇슬것을 예언하얏다더라(로-마면보)

伊豆海底陷沒

측량선의보고

작년구월일일 관동디방 큰디진의근원디로 지목되는상모탄(相模灘)의바다밋을측량선으로 부근일대 바다밋의측량조사를 맛치고인즉 군함대화(大和)는십구일에 대판(大阪)북항(北港)에도라와길

神戶에又地震

십구일새벽에

신호(神戶)디방에는 십구일오전삼시오십분경에 매우 급격한 디진이잇섯는데 시민들은 자다가 놀래어 뛰어나오고 일시 소동을 이르킨엇는데 디진의근원은 신호에서 북으로약구리되는 파주디방(播州地方)인듯하다더라 (신호면보)

又復短刀強盜

청주군의불안

충청북도 청주군북일면 정상리(忠淸北道淸州郡北一面井上里)리는사람은지난십삼일에 동군오창면 오근시(同郡梧倉面梧根市)에가서 중국산동성사람 금강진(金鈴鎭)부근서 삼백이십원을가지고 자택게도 라오는길에 중로에서 단도를가진 강도두명을 맛나서 소판돈일백이십원을 진부빼앗것다는데 이는사방으로범인을수색중이나아직까지 종적을찾지 못하엿슴으로 더단우려중이라더라(청주)

佩劍을人民에게

취한순사폭행

경긔도안성경찰서(京畿道安城警察署)에근무하는 순사송판용(宋判容)은지난십팔일밤열시경에 순찰하러나가는길에 자긔가 일곱개에 대금삼십오원에 약속하고 선금으로십오원을 미리주엇든 인천경찰서당의 관리 김윤(金閏)하고 범종동리 리병주(李柄周)에게채이어 거어년 니를바게되야는 피고는

列車火災

중국산동에서

오명즉사 사십명부상 산동성로철도(山東鐵路)제남(濟南)간 중국산동-청도(靑島)로가는렬차가 금령진(金鈴鎭)부근에서 불이나서 다섯사람이 죽고 사십여명이 부상하엿다더라 (동경면보)

入齒違約한公醫

의뢰자가고소

경긔도안성읍내장기리(京畿道安城邑內場基里)김종덕(金鍾悳)은 금번이고을의공의(公醫)로잇는염정죽지조(鹽井竹之助)에게 이를 해너흐려고 지난팔일불의 작년팔월의 그리유를거리경긔디방법원수원지텽에 소송을 데과하엿다는데 그 원고는 작년팔월에 맛치고 일곱개에 대금삼십오원에 약속하고 선금으로십오원을 미리주엇든바 그후 몃번씩 차저가서 이를해너흐려 하얏슴에도 리행치아니함으로 원금으로 해야되엿다 그리유로 소송을 데긔한바 ...

暴行巡査罷免

노름했다는혐의로사람을치고

평양경찰서(平壤警察署)에 근무하는도순사박한섭(道巡査朴漢燮)은 지난팔일밤 평양경찰의 구역인 평양부외 리명촌 안의 아는 세사람을 노름을하얏다는혐의로 구타하야 노름을하야다는혐의로 ... 면직을 당하엿다더라(단천)

物産獎勵宣傳

平壤에서도

유력청년일일에

평양에잇는 조선물산장려회(朝鮮物産獎勵會)에서는 지난십팔일 평양계리오관천(平壤鷄里五官川)씨 집에서 리사회를 열고 물산장려에 관하야 선전방법을 의론한 결과 ...

端川에靑年自殺

원인은정신이상인가

함남단천군 파도면대성리(咸南端川郡波道面大成里)사는 리희남(李熙南)의 장남 봉천(鳳天)은 지난십오일새벽세시쯤되야 정한서로암웅하야 다려(단천)

逃走犯人再捉

남시주재소순사에게

(평북의주)

詐稱記者被捉

시내화

곳처리합니다

(平壤商業專修學校)

휴지통

◇휴지통▲『형사순사가 강을하라다가 못하얏다』는 긔사를내엇것이『명예훼손』이라하야 동업조선일보의 재령디국당은 징역륙개월의 언도를바덧다한다 ▲『사실무』에 불구하고 ……라는 조문에 의하야 신문긔자에게 테형을가하는것이 과연정당한일일가 ▲형사나 순사의강간미수나 부녀모욕 사건은 날마다 몃번식잇는일이다 이런 한사실을 보도함은 언론긔관의당연한의무요 사명이다 ▲지난집이일 인천경찰서 량칭연에는 경성에서 환산경무국당과 마야경찰부당까지취토록 마시고 놀앗는 당은 문간에나와본즉 구두와외투가 어데로가고업슴으로 즉시 순사를풀러서 외투와구두의 종적을 수색하기에 일대소동을 이르켰다 ▲순사대의합동은실로 민활하얏다 그이튼날아츰에경당각하의 외투와 구두는 찻게되얏는데 놀나지 말지어다 그물품은 인천경찰서당의 관사에서발견했다고

不平

不平은 投稿歡迎 例에 限함

여보겨매국당!

나는당배소배에여산하기위하야 신청서를 한지가 만상개월이나 되는데 조사한번도안나오고 소식이 도모지업스니 무슨사탐인지 도모지 도무지 ...

地四節九十一錢

米豆餘墨

仁川期米 九日後場

仁川府海岸町 仁川米豆取引所仲買

天一洋行은 手一跡에 天一洋行

大擴張大販賣 現代式지갑 大特價壹圓八拾錢

一等朝鮮物産獎勵組合代表

六味湯 八味湯 倍四物湯 雙和湯 益氣湯 理中湯 肥兒湯 水土湯 六味丸 大補湯 京城府授恩洞 朝鮮商會

謹謝 因於事故 年賀缺禮 知舊僉位 幸勿負情 木浦竹洞百拾番地 東源 金東元

연부액 평화 京城府鐘路二丁目 平和堂化粧品部

米國製純鋼鐵捕獸器 京城府鍾路通二丁目七六 三豊商會

錦山八參 我朝鮮에唯一無二한錦山土種人蔘 錦山蔘業組合

裡里官立農林學校生徒募集

催眠術公開傳授

果樹苗木 內外植物

眼病 良藥 直治水 CHOKUJISUI 두려운傳染性잇는 도라호ㅣ므파上熱眼에 第一確實히卓效잇는 理想的의進步的目藥 本舖 大阪 丹平商會

高等普通學校 京城古市町

仁川日用物價

……二十二圓三十五錢에引……後阪地氣勢오히려弱하다傳하여……錢이라더욱軟化勢되니十錢에始하야稍高한三十一圓四十九錢에……始하야五十三錢을最高로更終三十一圓……

……二口有할뿐先限은阪地八十三錢에始하야少高氣勢로始價十錢이低하야十四錢을高價로翻鄭中에十錢으로七十五錢이오先限은阪……四十錢이오先限은阪地八十三錢에始하야十五錢을高價로……

仁川水道近況

成績은頗히良好

昨年十月부터計量制를實施한仁川水道의客月中의使用者數는四千九百十二戶에二萬一千一百十人으로使用水量은五十二萬二千七百三十二石四斗인데此를每日一人平均으로난호면한사람에八斗四升一合式이라하며이것을前年同月使用者四千六百三十六戶一萬九千九百三十人에七百六十九萬七千二百九十一石七斗五升一日一人平均十二石八斗七升四合에比하면約十五分之一에相當하다는바佐治水道課長의말에依하건대昨年보다前年이十五倍나더使用하얏다함은消防用에도關係가잇거니와第一은一般民間의計量制實施後節水한外닭이라지안타더라(仁川)

忠南道評議會

張間內務部長의豫算案說明要旨

張間忠南內務部長은大正十三年度地方費豫算을槪略左와如히說明하얏다더라

◇新規事業

一、種苗場에分析部를設置하고專任技手一名을增加하야分析化學試驗을行함(二○四四圓)
一、物產陳列所를移轉하야監視人을常置하고委託販賣를開始함(九三二圓)
一、畜產講習을行하며患畜治療를講함(二○四○圓)
一、道에獸醫一名을常置하고巡回診療及保健調査를行함(二五四○圓)
一、地方費一名을增置(二三六○圓)
一、主要都市三個所에屠獸檢查員을常置함(四四九七圓)
一、中野青年講習會를設하야身心의鍛錬을行함(六○○圓)
一、巡回文庫를設置(一二六○圓)
一、種苗場論山、禮山分場事務室其他附屬舍의建築을行하야禮山分場內의民有地를買收함(一○四七圓)
一、原蠶種製造所事務室建築(六七一三圓)
一、農業學校作業室及物置附屬舍建築實習地買收及整理(六六○五圓)
一、商業學校倉庫建築鐵條棚設置(三○六九圓)
一、米穀乾燥調製督勵員設置補助(五八五○圓)
一、種牡牛購入費補助(三六○○圓)
一、棉採種工場設置費補助(一○○○圓)
一、棉採種工場設置費補助(一○○○圓)
一、忠南南道水產會補助(一○○○圓)
一、乾繭場設置費補助(四○○○圓)
一、敎育會補助(一四○○圓)其他少額의件은略함(計七○、八三二圓)

◇本年度舉役事業

第一分場에小麥原種圃를廢止하고郡農會를經營(二千百八十九圓)第二小麥播種田을郡農會에移管함(一千五百七十五圓)第三堆肥製造傳習을廢止함(五百六十圓)第四種苗場本場建築費(三千三十圓)第五模範林建築費(三千二百圓)第六蠶業取締所建築費(四千二百五十圓)第九原蠶種製造所蠶室建築費(一萬二千七百五十圓)第十農學校官舍建築(三千三百圓)第十一引水設備費(七千五百圓)第十二江景上水道費補助(一萬圓)第十八蠶業補習學校諸給與補助(一千七百十三圓)第十九排水工事費補助(三千圓)小額의件은略함(計八八、七一○圓)(公州)

海州代書同盟

登記係와葛藤으로

海州地方法院登記係에잇는和田某는從前부터不親切한態度와不敬한言辭를濫用함으로代書人間에不平이極度에達하야相議한結果和田某가海州地方法院에在勤할時外지는登記事務를取扱치아니하기로同盟하얏는데其一例를擧하면代書人張某의土地登記事件에對하야不合理한條件下에決定하고却下를斷行하야印紙損害가七十餘圓에達한故로張某는其理由를具申하야同地方法院檢事局에告訴하얏다더라(海州)

普校增築決議

慶南三千浦

千浦에서는去十三日午前十時부터當地公立普校內에學父兄會臨時總會를開催하얏는데會長朴彩奎氏의開會辭가有한後當地有志張麗相同面長高橋柱兩氏는公立普通學校增築에對하야詳細한說明이有한後增築費五千百圓中二千圓은當局의補助를受하고其餘三千百圓은學父兄諸氏가負擔하기로決議되엿는바同會幹部諸氏는方今寄附募集에着手中이라더라(三千浦)

醴泉學校評議

慶北醴泉

泉郡第五回學校評議會는去十一日부터十五日外지五日間郡廳會議室에서開催되엿는데各議員(十名中二名缺席)과庶務課長李敦英財務課長荒木知吉郡屬西喜一郭雲瑛等四氏가列席하고前十一時三十分에議長은開會를宣하니議長金秉泰氏의開會辭와將來敎育施設方針의演說이有하얏는바今回議事日程及諸問指示事項은如左한데全部原案대로可決되엿더라

第一日(一月十一日)
一、醴泉郡公立普通學校授業料徵收規則中改正의件
第二日(一月十二日)
二、學校費賦課金의賦課徵收에關한件
三、不動產處分의件(甫校宅)
第三日(一月十三日)
四、大正十三年度醴泉郡學校費歲入歲出豫算의件
第四日(一月十四日)
豫算細目審議하기爲하야休會
五、前日第四議事繼續
六、大正十二年度學校費歲入歲出豫算追加의件
第五日(一月十五日)
七、前日第五議事繼續
八、學校評議會議錄調製의件
九、學校評議會員意見答申의件

當日午後四時二十分에議長은閉會를宣言하고高正熙旅館에서盛大한宴會가잇섯다더라(醴泉)

北青講習廢止

咸鏡南道

北青郡北青面耶蘇敎會의經營하는講習所와天道敎에서經營하는講習所는元來大正十年度에至하야朝鮮이同感하는兒童의就學難으로因하야相當한先生을延聘하며多數한生徒를募集하야普通學校와差異가업시學級을編成하야敎授하여오든바昨年十一月頃에郡當局으로부터公立普通學校及女子公立普通學校長과協議한結果兩學校에不就學兒童講習所를設置하고右記兩講習所에廢止命令을下하얏슴으로不得已本月十二日에修業式을擧行하고廢止하얏다더라(北青)

平壤時話

平壤支局 一記者

商議會頭選擧와朝鮮人議員結束

紛糾에紛糾를重疊하든平壤商業會議所會頭는去十五日內田錄雄이란日人이當選되얏다 內田이란人은如何한人인가 前番會頭競爭時에所謂『朝鮮人侮辱事件』의張本人이오 露骨的으로朝鮮人은日人의從者로視하는人이다 그럼으로아니라日人間에서도反對가激烈한人物이다 그런데此內田이란人이如何히되얏수番에會頭로當選이되엿느냐하면놀나지말나! 全部朝鮮人의『結束後援』에依함이라한다

□

前番에는所謂『結束反對』의張本人으로『結束後援』하든人을今番에는『結束後援』하야會頭로當選케하는것은그理由가如何한가 하면(議員中日人三三人은結束에加擔치안은이도잇지만은) 日內田이란人은우리朝鮮人으로는到底히贊成할수가업는人物이나內田氏와相對하야會頭를運動하든一派는 그方法이不好함으로朝鮮人議員들의感情을害하고또한一便으로는『朝鮮人議員의結束』이란것을日人들에게종알니기爲함이라한다

□

『結束』!勿論조흔일이다그러나그結束이우리民族을爲함이아니오一個人의感情이나或은엇던野心을爲하야弄絡이된다하면吾人은斷然코贊成할수가업다 內田이란人은우리朝鮮人으로서는到底히贊成할수가업는人이지만은日人들에게 우리議員들의『結束』을한번보이기爲하야內田과如한人이라도한번엇엇다는『結束의힘』을보이는데 아!그러타고君等은말하는데 그『結束의힘』은누구를爲하야日人들에게보이고저하는것인가?君等은名義上으로라도商工業者의代表者라한다 君等은이『結束』을가지고私事感情이나或은個人의野心에分에兒戲作亂과如한處事를하야도아모相關이업스며 朝鮮人의體面에關한事를하야도可하다단말인가!君等이여!君等이만일엇더한野心을爲하야一般을愚弄한다하면社會가엇지君等을容恕할것인가!

全北道評所感

全州 一記者

屢々報道한바와가치全北道評議會는豫定대로今月八日부터十六日까지平穩無事中今年度地方費歲入出豫算案과其他諸問案을原案대로通過終了하얏다平穩無事라하니조곰異狀한말갓흐나評議會가우리의生活에何等緊切한關係가업는것으로생각하얏슴인지 다그러나우리의피와땀으로모두어서나누어먹고쓰는內容이엇더한것이나一般이알고지내야하겟다는생각에서허무러엇지經過狀況을우선하고其大要를紹介함이다따라서所感되는바를말하고자한다

開會時間 첫재開會時間에對하야말하고자한다第一日에一時五十五分其後는速해一時間內外를常例로遲刻開會하얏다前後遲刻數를每日平均하면一時五分이된다所謂道內官民代表가會集함에이와갓흠인데每年一次式에不過하는것을日本式인지朝鮮式인지如何튼宣傳한다고떠들기는누가하는이것이開會日數九日間에會議時間을統計하면二十八時三十二分이오此에通譯時間을半分即十四時十六分每日平均一時四十七分이다그리하고서議事進行中時間이업스니『簡單々々』하는것도奇觀이엇다

人件費九割 勸業費三十萬五千餘圓中人件費로九割以上을計上하얏스니勸業을爲하야人件費를計上함이아니요人件費를爲하야勸業을하는것이냐고宋泳喆君의質問에松本內務部長은그것은經常部의計上이요臨時部에事業費를計上하엿고勸業指導上人件費가過多타함은無理한質問이라고하엿고松本君의答辯대로經常部와臨時部를合計하여보아도人件費가五割以上이다그러면宋君의『배』보다『배』보다몃배나더크다는말이요松本君은『배』이나『배』가相等하다는細音이다또한水稻는早神力、棉花는陸地棉을심으고副業으로는叺을싸라는等指導하기에嚴한官員을多數히두고이리해라커리해라하여야愚昧한百姓들이벌々떨고服從하야먹을것이만히생기고安樂한生活을할것인가果然그러한가그리하야모조록官吏들만이두고月俸으로加俸으로舍宅料로旅費로慰勞金으로로무엇々々찌게가업서恨이다蔽一言하고歲出豫算全體의五割以上이人件費라한다우리는이러한內容이나아려야할것이다

勸業會廢止 有名無實한勸農會를廢止하고完全한農會令을發布하야實効를奏케하라는金英武姜東曦兩君의質問에松本君은그는짐작하나目下의形便으로할수업스니農會令發布時外지容認하야달나고하엿다그러면當局에서도有名無實인줄은아는모양이다무엇을爲하야無用의그것을農會令發布時外지容認하여달나하는지勸農會職員에게哀乞伏乞로豫算案을通過하는모양이라하니그러나그月給먹기爲하야各會員에게哀乞하는것이라하니그러나……

敎育制度變更 敎育費에對한寄附金募集의實例를보면有志者는多少應募하되相當한資產家라도絶對不應한者가多有하야募集키甚難하니目下敎育熱이極度에達한形便을보아서普通敎育에對하야는日本人學校組合과如히民間에一任하면各自의子女敎育에責任을다하고아니할수업는地方의自由라는李海晩君의質問에松本君은學校費는强制的性質이有함으로無理한賦課하얏다此는範圍가조곰廣汎한問題라一道當局의意見으로判定치못할것인즉後考하겟다하엿다그러나强制의性質이有함으로또賦課할것은누구나그러나當局의意見이그대로보고말것이아니라그대로强制의性質이有함으로是非를……

勸業보다敎育

國庫補助가減하야敎育費를減함이요地方費補助는如前이라함에鄭碩謨君은民間에서실혀하는所謂勸業費를減하고라도敎育費를더욱增加함이可하다고質問하얏스나經常部에二萬二千四圓을增加하고臨時部에七萬五十圓補助費에二千八百六圓을減하엿스니前年度보다五萬二千九百四十二圓이減額되엿다고松本君은國庫補助가減되얏다는말하나國庫補助에一萬二千九百九十二圓만減되엿스니三萬九千九百五十圓은엇더한外닭이냐前年度보다一萬一千六十圓이增加되얏는데歲出은經常臨時部를合하야三萬九千八十圓이增加되엿다하니果然地方費豫算이漸次膨脹하는것은어떠한理由인지……

煙針患者撲滅 우리社會에最惡한『모히』患者撲滅策에對하야私力으로는一時的에不過하고根本的으로撲滅策에는官員의强制的束縛이澈底하여야될것이오州癈風會經營의收容所는取締局의取締方針을贊同하야川崎警察部長은地方各團體의自發的努力을바라며嚴重한團束을하겟다고하엿다果然地方團體의自發的努力도必要하고또한警察의取締方針도必要하거니와……

日本視察無用

面吏員

日本視察費計上에對하야其視察의効果라하면細洋服사입고보기조흔物品사가지고오는것뿐이요漢方醫藥에若干識見이有한者로日本을視察케하야新進醫藥界에對하야等効果를奏치못할것은勿論이다는理由로宋泳喆君의質問에對하야日本의模範村을視察케하면다하야日本視察케한効果를볼하다고도말하야面吏員이模範村과如히못한다는말은엇더한功效를바랄가不少하다는것을力說하엿다果然하야當局의答辯은모다우리가바라는것과는반대인것이다(未完)

馬山倉庫業績

馬山

馬山倉庫株式會社에서客年度에取扱한入庫及出庫品은다음과如하다는데前年度에比하야入庫品으로는五倍以上이增加하얏스며出庫品으로는四倍以上이增加하얏다는바品名及數字는如左

	入庫 石	出庫 石
玄米	六、八一八	八、四五五
籾	二四、三八三	四、八五五
白米	五二六	四五六
大麥	八三五	三九九
粟	五七○	五七○
麥粉	四、五七○	二、四二○
砂糖	三九○	三九○
晒金巾	二	二
細布	一○	一六
鮮白木	二五六	二五四
鮮麻布	一○七	一○五
白芋	二四	二三
洋雜紗	五	一○
仁斯	二	二
木綾	五	五
黑綾	五	五
紡績絲	四○	四○
稀絲	五	五
煎子	一、一九○	五七五
明太魚	三、九三八	四、○八八
鹽	二、四四七	二、三五○
叺	二、○五○	二、○九三
筵	一、二六○	三四一
葉煙草	一、九六○貫	五、四八六、七匁
ゴム靴	二一	二一
粗布	七	七
甘藷	六○○叺	二、四○○
人蔘	七二綿絲	九
計	五二、○八八	計三五、三六三、九匁

(馬山)

少年歌劇準備

平南成川

成川郡天道敎會의經營하는私立中學講習所에서는經費의困難으로今番三學期의開學日字는十餘日이經過되엿스되아즉도開學을하지못하는悲慘한境遇에잇는데이에本郡少年團에서는그講習所에同情하기爲하야歌劇大會를開催하야入場券收入과一般有志의同情을求하기로하고方今準備中인바試演日은二十一日이라는데一般有志는天道敎會講堂이라는데一般有志는多數來觀하기를希望한다고(成川)

南浦刑務近況

鎭南浦

鎭南浦刑務所의最近調査에依한즉收監된罪囚의總數가二百四十七人이라는데其中受刑者가二百三十六人被告人六人勞役場留置가五人이라하며受刑者의罪名을別하면如左하더라

住居侵入一、放火四、阿片罪一、賭博四十五、…………通貨僞造二、猥褻姦淫三、殺人八、傷害九、掠取誘拐三、竊盜八五、强盜八○、詐欺恐喝一八、橫領一、贓物罪一、外國通貨變僞造一、大正八年制令第七號違反六四、大正八年……(鎭南浦)

大邱記者總會

大邱

大邱記者俱樂部에서는新年宴을兼한總會를去十五日午後六時料亭春八和에서開하고規則一部를改正하야從來의常任幹事一人을置하얏던것은廢하고每日當番幹事가代任케한다는決議를한後酒席에移하야十二分의歡을盡하고同十時半에閉會하얏더라(大邱)

元山電信狀況

元山郵便局客月中電報發着數는左와如하더라

日文發信		二、一三八通
同 着信		一四、七一八
鮮文發信		七三四
同 着信		六二四
歐文發信		二八
同 着信		二七
日文中繼		六五、四○二
鮮文 同		八、二六五
歐文 同		二一○

(元山)

元山在穀總量

元山商業會議所調査에依하면昨年末元山在穀高는左와如하더라

白米(石拔)	一五四石
同 (韓白)	九八五
玄米	二二五
租	二、六九四
糯米	九五
外國米	一六六
粟 (滿洲)	三、二一六
大豆(朝鮮)	三、四二九
小豆(同)	二三五
小麥(同)	五○五
雜穀	九八五

(元山)

官公吏의美擧

加平邑

加平邑在南監理敎會는財政을獨立한在敎會인데同敎會와附屬女學校의財政이窘拙하야困難이莫甚하더니牧師李康雨氏의活動한結果當地各官公吏諸氏가每朔多少의金錢을寄附하기로되야數人一同은매우깃버한다고(加平)

『국수당』의發展

元山

元山府內館橋洞의一部인『국수당』에……

月謝增額協議

鎭南浦

府廳學務課에서는普通學校授業料增額에對하야考究中이든바去十六日各普通學校長을召集하야協議하엿다더라(鎭南浦)

……은當局에要望한바此는不遠間實現될모양이라더라(元山)

平南水產會議

平南水產會는來一月三十、三十一兩日間鎭南浦水產會에서開한다더라(鎭南浦)

元山上旬貨況

元山驛

元山驛貨物取扱所의本月上旬中貨物取扱高를聞한즉發送一千二百十四噸到着一千七百五十五噸인데品種別을示하면如左

▲發送

乾明太	二二七噸
鹽魚	六○
鮮魚	七九
海藻	二六
生牛	四七
當社用品	二二九
其他雜品	四四六

▲到着

米	二○六
大豆	八一三
雜穀	一八
木材	四七
石炭	一八二
黑鉛	二六
叺	九一
薪炭	七八
生牛	四七
其他雜品	三四七

(元山)

元山支廳統計

客年中

咸興地方法院元山支廳에서取扱한刑事事件數를聞한즉刑法犯受理가朝鮮人千四百七十四件日人百九十四件中國人四件外國人七十八件인데公判에付한것이朝鮮人百七十八件日人三十一件中國人二件外國人一件이오特別法犯受理가朝鮮人百六十件日人二十件外國人九件外國人一件인바公判을求한것이朝鮮人六十六件日人……

特別警戒事故

元山警

元山警察署에서는去月二十五日부터本月五日外지年末年始의特別警戒를行한中事故는如左하더라

▲殺人一件▲竊盜五件▲賭博八件▲保護三件▲注意一二三件▲說諭三件▲制止一○二件▲其他一一九件(元山)

……六件中國人二件이요其外는全部不起訴라더라(元山)

……는近年人家가激增하야只今은戶數가三百餘戶요人口가六百餘名에達하야將來發展의希望이有한바旣히夜警團과衛生團等의設備도有하엿고目下消防團을組織코자運動中이며又通信機關의一助로自働電話의設置와『포스트』의設置를當局에要望하얏는데……

慶南警察淘汰

釜山警

慶南警察部에서는日本人巡查四人과朝鮮人巡查一人合五名을淘汰하얏는데그內容을聞한즉今般慶南에서는整理를하기爲하야約五十名을淘汰하리라더라(釜山)

小作人의기붐

忠清北

道清州郡江西面內谷里李學根氏는自己所有土地에對한地稅를昨年부터自擔하야納付하엿스며賭租도亦是輕減하야小作人들은매우깃버한다고(淸州)

江華學校評議

江華學

校評議會에서는去十四日에評議員會를開催한結果新年度부터는兒童의月謝金을從來의五十錢이던것을七十錢으로增額케하고新年度豫算을決定하얏다는데其收支豫算은如左

歲入

一金三九五三七圓 經常部
一金 七三○九圓 臨時部
合計金四萬六千八百四十六圓

歲出

一金四六八四六圓 經常部

以上을다시各學校別로示하면
江華普通學校一五九六六圓
喬桐普通學校六七六八圓
吉祥普通學校八五二七圓
河帖普通學校六九五一圓
仙源普通學校四八五一圓(江華)

蔚山防火宣傳

蔚山防

火宣傳에努力하든當局에서는今般그旨를徹底히實行코저하야陰曆四九의日(蔚山市前日)을防火日로作定하고當日은警察員이總出宣傳한다더라(蔚山)

◇青年其他集會◇

▲宜川少年歌劇會 宜川少年會에서는去十七日下午七時卅分新義州常盤座에서歌劇大會를開催……

▲孤兒救濟事會 平壤孤兒救濟會에서는去十七日午後八時平壤府內에서理事會를開하고左의事項을決議하얏더라

一、定期總會는一月二十五日에開催할事

一、寄附金募集期限을一個年間延期할事

▲平澤修營團組織 去十七日午後二時부터振威郡廳會議室에서振威郡守發起로管內官民有志二十餘名이集合하야協議한結果平澤修營團을組織하기로하고林奕鉉 李香燮 金纘植三氏를交涉委員으로選定하얏다더라(平澤)

▲成川消防組織 平南成川郡成川消防組에서는年例에依하야去十四日에出初式을擧行(成川)

▲成川署長招待 平南成川郡……去十六日午後二時郡內有志와新聞記者를招待……(平澤)

▲鄭城秀氏送別會 ……富川郡守鄭城秀氏가……富川郡郡業組合長元鍾氏外郡職員全部는氏를爲하야去十五日에盛大한送別會를하엿다고(仁川)

▲安州少年歌劇大會 安州郡大尼面漁里農友會主催로天道敎安州少年會와仝樂部를請邀하야去十六日夜에當地夜學校內에서樂舞蹈大會를開催한바觀衆이五百餘名에達하야盛況을呈하얏스며翌十七日에는雲川으로向하얏더라(安州)

▲永化女校後援會定期總會 仁川府角里永化女子普通學校後援會定期總會는來二十二日午後七時同校에開한다고(仁川)

許生傳 (51)

長白山人

네나라를두고 (二)

오리대강이 모양으로 파라케 보이던 고국의산도 안보이게되고 어되를보나 늠실늠실하는 물결뿐이외다 느즌 가을날이라 바람이 서게불고 놉이게부는번 화가잇슴이지 차늘은 하로가 치파리케 맑아서 나채는멧백리 밧긴지 알수업는 수평선우에놉 실거리는 물人결의 선머리를보 고밤에는 서편하늘에걸린 은갈구리가튼초생人달을보앗습니다 어듸를보면 섬하나이 보일가 섬은커녕 배하나인들보일가 배는커녕 바다로집을삼는 갈매기 조차도 멀미가나서 못나오는이 곳업는바다에 기러기떼가는사 십쳐 배는 길다케 두줄로 늘어서서 소리업시 남으로 남으로 흘러감니다 배人속에 잇는사람 들조차 떠난첫날 이튼날은니야 기들도하고 떠들기들도 하엿지 마는 사흠나흘 날이지나갈사록 차차말이업서지고 물쇠렁히 로마조보거나 그러치아니 하면 생각을하는듯 근심을하는듯 고개를수기고 언케외자든지 안젓 습니다 더욱이밤이나되면 사람들은 말할것도업고、소와개고양 이들도쉬지도 모도감히 잠이들고 배人사람들만 멧치예어서 압뒤로왓다갓다하면서 무에라고 두런두런함뿐입니다 날이갈사록 달이점점 살아서 시컴어턴 바다가 더욱더욱밝아서 오늘헤도 쪼덥어가 구만리 하늘人길 발할업시 전이와 서왕모 요지연에 헤엄어갓네 넘어가! 그런지 얼마아니하야 지참서 지는은에 쇠우지도아니하엿던반달이 서늘하고 맑은빗을걸마다에 보입니다

『달이 떳네 반달이 동무떳이 씻고나 커달은……

고국강산도 빗최련마는 부모님도 안녕하신가 친구들도 모두 잘잇는지 커달아

네빗을 빌려라 가뵈올가』

이모양으로 밤이늘고 나고 해가뜨고지고 잠이 오고가고하는동안에 갈구리 가튼달이반달이되고 반달이점점더살아서 배부른 송편과가치되엿는데 아직도바라고바라는 남조선은 뵈이지를아니합니다

『가지 어서가 바다건너 남조선가 만경창파 머나먼길에 후후후 낡아 어서가자 에라만수』

그러다가 해人바위도 미나면 칙힌구만리 人길을 발할업시 거려서 마음에떠난 달人집으로 도로드러가게됩니다 또 아가모양으로 바다人물은 부글부글쌀 코 하늘은이글이글타고 뎌더가 왼종 봄人멍어리가되엿다가 그것이 차차차 식어지며 강물은 명어리가 스르르붉은으로 니러가면 자주人빗쳐진이무우이 후루후룹려서 바다를 덮습니다 『해넘어갓네 넘어가』

……다에 보입니다 ……봄人집빗이……봄人바위가 봄人쪽으로 ……그리다가 동人쪽하늘에……

質疑應答

一、『質疑』는日常生活에關係잇는事에限함
一、『應答』은總히本欄으로써發表함
一、『質疑』는讀者에限하야必히朱書로『質疑係』라明記할것을要함

【問】肺病患者와同一한事務所에서約三個月間이나連續執務하온故로或傳染의念慮가不無하오니엇더하면傳染을豫防하는方法은無할가요(熊川李生)

【答】그方法은自身에病의有無를안뒤에야비로소알것이니몬져內科醫에게問議하야보시요(記者)

◇取消申請 謹告 本報第一二三四號二面記事中『育英學校의怪態云云』의事實은全然相違될뿐아니라至於個人의名譽毀損上莫大한關係가有하오니至急原文을記根하시고取消케하야주시압

大正十三年一月十八日

南浦鎭南浦朝日店 張宇根

東亞日報社 貴中

舶來品에優한最新最良의

プラトンインキ
プラトン鉛筆
プラトン萬年筆
プラトンシャープ鉛筆

中山太陽堂文具部發賣

齒를爲하야第一조흔

クラブ齒磨

懸賞募集

兒童愛護 標語

兒童愛護와精神普及

어버이가子息을사랑하는것은純本能이다。그러나참된사랑이되고못되는것은사랑에對해서도미더운이를依하는지다。참된사랑은精神과肉體의調和에依하야進化하고精神된合理의사랑이면아니하는지다。그것이兒孩의生活을充實向上케하는것이다。母가子에게對하는頭、其力은洞闢하다고말할것이다。이强한力을最히進化하야가는것이子孫의精神이問題하나다。本所는此標語의普及宣傳키爲하야玆에兒童愛護의標語를募集하니다。

投稿

應募規定

一、簡潔하며其要를得하게할事
二、用紙는必히郵便葉書를使用할事
三、應募者의住所氏名을明瞭하게記入할事
四、본신新聞名을記入할事

締切 一月三十一日

發表 二月下旬 新聞紙上에서

宛先 中山兒童敎養研究所標語係(大阪市北區堂島ビルヂング)

選者 中山兒童敎養研究所所長 醫學博士 三田谷啓
中山文化研究所所長 久留島武彥

◆當選者及選外佳作에對하야左記賞品贈呈

賞品

一等	金側時計	一名
二等	金張プラトンシャープ鉛筆	二名
三等	金五圓宛	十名
選外	カテイ石鹼	百名
佳作	クラブ齒磨	百名
	クラブ齒刷子	百名

大阪堂島ビルヂング 中山文化研究所內
兒童敎養研究所

月曜欄

比律賓獨立運動의 史的考察 (續)

東京에서 高永煥

六、米領以後의 獨立運動

米西戰爭의 結果 米國의 比島領有에 關하야는 同島의 獨立運動上 幾多의 問題를 包藏하엿다 다시 詳言하면 米西戰爭의 當時에 米國海軍의 司令官 『듀에이』將軍은 그 强大한 海軍力으로써 西班牙의 海上防備를 破壞하기는 하엿스나 上陸한後아즉 一人의 米國陸軍이 업는中에 本國으로부터 來援할 陸軍은 海洋萬里에 아즉 容易하게 到着할 可望도 업는지라 於是에 在『상가폴』米國領事『쁘랏트』氏는 한 臨機應變的 手段으로 當時『상가폴』에 滯留하는 比島叛將『아쉬나ー드』將軍을 說服한後 그를 利用하려고 兵器彈藥을 提供하여 陸上에서 叛族을 再揮케하야 西班牙軍을 『마닐나』城에 壓迫케하고 米國軍이 到來하기까지 西軍으로 하야금 一步도 進退치못하게 하엿다 그런데 여기에 한 問題가 되는것은 『쁘랏트』氏가 『아쉬나ー드』將軍을 招致할때에 氏는 그 招致의 條件으로 將軍의게 比律賓獨立을 保證하엿다는 事實이다 이 獨立保證의 眞否如何에 關하야는 그後 米國과 比島와의 새이에 서로 議論되는 問題가 되엿스나 比島側에서는 어듸까지든지 事實이라고 主張하엿다 더욱 『아쉬나ー드』將軍은 確實히 口約이 잇섯다고 主張하야 米國에 向해서 再三抗議를 提出하엿다 吾人은 只今 當時의 形勢로 推想하여보면 如斯한 口約가 잇는것이 分明히 잇섯스리라고 確信한다 왜 그러냐하면 現今 吾人이 日常耳聞目睹하는 各般事實과 또 『歷史』라는 過去의 記錄에 依하면 國際間 關係도 又個人間의 關係와 가치 强者가 弱者의게 對해서 본저 前約한 事實을 抹殺蹂躪하며 또는 强迫威脅하는 橫行을 着手하지 反對로 弱者가 强者에게 對해서 敢히 업는 事實을 잇다고 主張하는 例는 稀貴한 外닭이다 다른 요새 流行語로 換言하면 『쉘조아』가 『푸롤네타리아』에게 對해서 본져 詐欺橫領하며 또 食言違約하는 惡習을 實行하엿지 反對로 『푸롤네타리아』가 『쉘조아』에게 對해서 본져 어든 前例를 지은 境遇는 全無한 外닭이다

말이 넘어 脫線的으로 되엿다 인케 다시 本問題로 還元하야 米西戰爭의 結果에 對한 巴里條約時에 比律賓은 如前히 西班牙가 統治하겟는가? 或은 米國에게 讓渡하겟는가? 가 問題될 際에 比島人民은 그 代表를 特派하야 絕對的 獨立을 要求하엿다 그러나 이 懇切한 希望에 對하야는 一分의 顧慮도 되지 안코 比島는 그 國人에게 何等의 交涉도 업시 米西兩國의 協議에 依하야 舊主인 西人에게서 新主인 米人에게로 任意賣買되엿다 於是에 比島人民은 無雙히 憤慨하엿슬뿐더러 더욱 獨立의 保證을 어더가지고 奮鬪活動하든 『아쉬나ー드』將軍의 憤激이야 말할것도 업시 『클나이막쓰』에 達하엿다 그럼으로 『아쉬나ー드』一派의 勇將들은 即時起兵하야 米國과 戰爭을 開始하엿다 開戰을 하기는 하엿스나 一方에는 西半球全體를 號令하는 强大國 對方에는 貧弱한 小島國의 一敗將이라 그 對戰의 形勢야 말로 鳥足의 力으로써 泰山가튼 金城鐵壁에 부듸치는 것이나 다른 바이 업는 터인즉 到底히 戰爭다운 戰爭을 繼續할수 업는 것은 自明한 理論이다 『아쉬나ー드』軍이 餘地업시 慘敗의 悲運을 當할에 主將『아쉬나ー드』氏도 하는수업시 甲冑를 벗고 米軍에 降伏한後 米人의 嚴重한 監禁下에서 悲慘한 生涯를 마치게 되엿스니 이는 一八九九年의 插話이다

以來 比島는 米國의 版圖內에 蹂躪하야 그 統治를 밧게되엿다 그러나 比島人이 米國의 主張에 心服한 것은 決코 아니엿다 비록 表面으로 叛亂等의 暴擧는 頻發치 안햇스나 엇던 機會만 잇스면 곳 獨立하겟다는 希望을 품고 잇섯다 그리하야 米國에서는 『레지덴트·콤미소나』가 率先하야 獨立運動에 努力하고 國內에서는 島民이 殆히 擧國一致로 獨立運動에 熱中하얏다

元來 比島에는 議會가 開設된 以後 二個의 黨派가 잇스니 即 그 一派는 穩健한 事情下에서 比島의 狀態를 改善하려는 民主黨이며 他一派는 急進的으로 獨立의 步調를 前進하려는 國民黨이다。그런데 『하리슨』總督時代부터 國民黨의 勢力이 次第로 民主黨을 壓倒하야 上院議員 二十四人은 全部 國民黨일 뿐더러 下院議員의 殆히 全部도 國民黨員이엿다。그런外닭으로 殆히 一國一黨의 事實을 發揮하야 글字의 뜻대로 참 擧國一致하게 獨立運動에 邁進하얏다。『하리슨』總督의 人格이 엇더케 高尙하며 그 行事가 또 至公無私하든지 氏의 在任中에는 獨立運動費로 年々 百萬圓의 支出豫算을 通過식혓다 고한다。참! 氏의 人道的 事業에 貢獻한 功績에 對하야는 누구나 感歎敬服을 아니할 수 업다

그러나 米國의 政局이 一變하야 共和黨大統領 『하ー딩』氏時代에 들어서는 如斯히 熱烈하든 獨立運動의 希望도 그 進展의 步調가 적지안케 妨害되는 觀이 잇섯다

七、米國政府의 態度

如斯한 比島民族의 獨立運動에 對하야 米國政府의 態度는 如何하얏느냐 하면 民主黨은 一九〇〇年大統領選擧運動에 比島의 獨立을 許容하는 것으로써 그 政綱中 一條를 삼는다고 如左히 宣言하얏다

『吾人은 現政府(共和黨政府)의 對比政策을 非難하노라 吾人은 比律賓에 對하야 第一먼저 鞏固한 政府 다음에 獨立 그리고 第三으로는 外部로부터 侵入하는 干涉에 對하야 確實히 保證하야주는 것이 米國人의 目的인 것을 即時宣言함에 贊成하노라 云々』

또 一九一二年의 選擧運動에 에 發表한 同黨의 政綱은 다시 一步를 更進하야 比島의 獨立을 主張하는 點까지에 適한 것은 如左한 宣言一節로써 足히 推察할수잇다

『吾人은 比島에 鞏固한 政府가 建設되는 대로 그 獨立을 承認하기를 即時宣言에 贊成하노라 云々』

그리하야 該選擧의 結果로 『윌손』氏가 大統領으로 當選됨에 氏는 翌年十月에 『하리슨』氏를 比律賓總督으로 任命한 後 如上한 政綱에 基因한 米國政府의 對比方針을 如次히 公布케 하엿다

『米國政府는 比島의 終局의 獨立을 目標로 삼고서 獨立의 準備로 各種의 手段을 採用하려 하노라 그리하야 比島의 安全과 永久한 利益이 許하는 限度內에서 速히 이 目的에 向하야 進行하려고 하노라 云々』

如斯히 可及的 進步政策下에 進行하는 外닭으로 一九一四年에 米國下院에 提出하야 一九一六年에 成立된 『원니암·아른킨·존슨』氏의 比島自治法案가 는 것은 民主黨의 多年間 主張하든 바를 成案으로 實現식힌 것인데 比島의 獨立運動에 對하야 多大한 援助를 提供한 것이다 이 法案에는 그 冒頭에

『米國人民은 先年西班牙와 戰爭함에 當하야 決코 領土擴張의 計策을 目的한 것이 아닌 外닭에 從來에 恒常 堅實한 政府가 比島에 建設되기를 企待하야 速히 比律賓에 對한 米國의 主權을 撤去한 後 比島人民의 獨立을 承認하는 것으로써 目的을 삼노라……』

고 明記하엿다。이 法案의 原案에는 一九二一年 外지에 比島를 獨立식히자고 明記하얏스나 議會는 年度를 定하야 獨立을 承認한다는 것은 좀 넘어 輕率한 態度의 嫌이 不無하다는 理由下에서 『스테이뿔 엇번멘트』 即 『鞏固한 政府』의 實現할을 기다려서 獨立을 許容하겟다는 意味로 改訂하엿다 그러나 如何든지 比島의 獨立은 한 時期의 問題이요 原則上으로는 主權國인 米國이 承認한 것은 瞭然한 事實로 되아잇다。事實上 比島에 上下兩院이 設立된 것도 이 존쓰法案이 如意케 잘 通過된 餘澤으로 適當한 時期에 獨立을 許容하겟다는 約束을 엇게 된 結果이다。그런즉 比島人이 獨立의 秋가 到來하엿다고 歡喜하는 것도 宜當事이다。屢次 말한 바이지마는 前總督 하리슨氏는 果然 데모크라트의 政治家 되기에 조금도 遜色 업는 人道主義者이다 氏는 일즉이 公平深切한 態度로 比島의 獨立을 贊成하는 演說中에

『比律賓人은 試驗을 훌륭하게 通過하엿다。性質上 經驗上 財政能力上 其他各方面으로 보아서 一千萬의 比島人은 그들의 選擇한 政府에 依하야 支配바들 資格을 가지고 잇다 그들은 充分히 自決할 만큼 恰悧하다 比律賓의 土人官吏는 歐米文明國의 官吏와 同樣으로 正直하며 또 能率도 優秀하다…… 그들의 代表者의 常識과 遠慮 그들의 가진 바 强한 自制心 그들의 公的義務의 忠實히 遂行하는 等事는 鞏固하며 進步的인 政府를 比律賓에 다 建設하려는 米國의 努力을 容易케 한다』

라고 公言한 일도 잇섯다 또 윌손大統領도 一九二〇年 米國議會에 보낸 敎書中에 比島獨立의 約束을 履行하는 것은 米國人의 義務라는 意味를 陳述하엿다

그러나 比島在住의 米人들은 比島獨立을 조와하지 안는 모양이다 이는 그들의 大多數가 米國官憲의 庇護에 依하야 無理한 利益을 엇는 者들인 所以로 萬一 比島가 獨立하는 時에는 그 法外의 便宜를 全失하게 될터인 外닭이다 實은 하리슨總督의 評判이 在比米人側에 不好하게 된 것도 그 原因은 氏의 土人에 對한 機會均等主義에서 動한 것이다 그리고 또 米國本土에 잇는 一般人士의 意見은 如何하냐하면 大槪는 比島의 獨立을 不當하다고는 認知치 안으나 그러나 그들의 頭裏에는 今日의 比島가 果然 獨立할만한 實力이 充分히 잇느냐? 하는 杞憂로 狐疑踟躕하는 모양이다 그우에 또 一旦 獨立을 식힌다 하드라도 그後에 第三國의 毒手가 襲來하야 米國의 無雙의 好意를 抹殺한다는 豫想以外의 不祥事가 發生치나 안을가? 하는 念慮外지 添加하는 모양이다 그 所謂第三國이란 것은 世界大戰前에는 獨逸이 다가 今에는 日本을 暗示한 것이다 只

伯林에서

(十二月四日) 金俊淵

李兄! 獨逸物價가 高騰하여젓습니다 東亞日報紙上에 轉載된 在獨逸日本總領事의 報告도 보앗습니다 事實이 올시다 即今은 勿論 우리가 日本잇슬때의 東京生活費보다 더 들뿐 아니라 佛蘭西보다도 더 빗사고 英國이나 가치 듭니다 그러나 넘우 物價가 高騰하다고 報告하면 우리 留學生의 獨逸오는 것을 막는 것이 되기 때문에 即今까지 躊躇하고 物價가 내리기만 苦待하엿습니다 하엿스나 物價는 나리지 안코 生活은 漸々困難하여 갑니다 獨逸잇는 近六十名되는 우리 留學生의 前途는 참 悲觀이올시다 어대가던지 걱정 걱정거리 걱정이올시다 돈좀잇다는 사람도 그럿습니다 업는 사람은 勿論 말할것도 업습니다 以前에 物價가 그리 高騰하지 아니햇슬때에는 서로 取貸해 쓰기도 하엿습니다 하엿스나 即今은 世態가 一變하여서 自己걱정을 못하는 故로 남을 도라볼 새가 업습니다 獨逸잇는 近六十名되는 우리 留學生의 前途는 참 慘憺합니다 우리 學友會에서는 有志者의 寄附金을 募集해서 臨時救濟部를 設置하고 참으로 朝夕이 難堪한 몃사람을 도와주기로 하엿습니다 하나 生活費가 猝地에 高騰하여졋슴으로 寄附金이 잘 收納이 되지 못하고 寄附金이 設使 잘 收納이 되여서 얼마式 補助를 한다하더라도 그것가지고 지낼수는 到底히 업슴니다 참 딱합니다

李兄! 昨年에 우리 四五人이 作伴해서 獨逸重要地方을 約一週間 旅行한 일이 잇섯습니다 그때는 十月이엿습니다 그때에는 二等車만 타고 단엿는데도 每名下에 十圓이 다 못들엇슴니다 또 今年으로 말하더라도 八月에는 五日間 各地로 旅行을 단엿습니다 그때에는 거의 車만 타게된 故로 一等을 탓섯습니다 하엿지만은 每名下에 二十五圓밧게 아니들엇습니다 한데 이 十一月에 들어와서는 伯林서 두時間 汽車 길되는 곳에 가서 하로동안 어느 病든 親故를 訪問하엿섯는데 每人下에 十圓이 더 들엇습니다 또 『함부르그』라는 곳에 가서 하로 처녁자고 왓는데 每人下에 三十圓이나 들엇습니다 勿論 車는 三等을 탓습니다 物價가 高騰하여서 內外人이 다 困難이올시다

李兄! 今年 八月에는 二十五圓을 가지고 一等車로 五日間 旅行을 하엿섯는데 今年 十一月에는 三十圓을 가지고 三等車로 一日間 旅行을 하엿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四個月間에 物價가 近十倍나 올랏습니다

李兄! 나는 決斷코 모든 物價가 다 十倍가 올랏다는 것은 아니올시다 하나 趨勢는 大槪 그러합니다 하면 그 原因은 어데 잇는가? 實狀 말슴하면 우리가 今年 八月에 二十五圓 가지고 五日間 數千里 長距離 旅行을 햇다는 것은 不當利得을 한 것이라고 볼수 잇습니다 그때 外지는 獨逸汽車 삯이 아주 紙幣로 計算되던 때올시다 한데 돈은 猝地에 暴落이 됩니다 하나 官廳에서 車賃을 올리는 데는 여러가지 手續上 問題가 잇서서 簡單히 되지 못하고 날字가 걸림니다 新聞에 어느날부터 車費가 올은다고 報告가 납니다 하면 車갑을 올으기 前에 速히 旅行을 함니다 그리하면 費用이 적게듭니다 八月의 旅行은 그것이엿섯습니다 하나 十一月부터는 金馬克으로 車費가 되엿습니다 해서 車費를 金貨로 作定해 둠니다 하고 每日 돈 時勢서는 대로 金貨 一馬克에 紙貨 몃馬克식켜 밧습니다 함으로 엇지할 수 업습니다 十一月 一日부터는 郵票도 亦 그럿케 되엿습니다 即今은 百物이 다 金馬克 標準이올시다 即今 米貨 一弗에 四兆二千億馬克 합니다 日本돈 一圓에는 二兆一千億馬克이올시다 昨年七月에 三圓주고 百馬克 산사람이 잇다면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해서 一金馬克에 一兆紙馬克을 밧습니다 해서 車費나 郵費나 料理값이나 무엇이나 金馬克으로 얼마 매天코 紙馬克으로 計算해서 밧습니다

李兄! 그러면 戰爭前과 맛찬가지겟고나! 한데 戰爭前에도 獨逸伯林서는 한 六十圓 가졋스면 工夫하엿다는데? 하고 물을이가 잇겟습니다 돈이 金馬克으로 計算된다면 戰爭前이나 맛찬가지가 아니겟나? 하겟습니다

李兄! 獨逸은 戰爭前에 社會政策이 잘 實行되엿던 곳이올시다 社會民主黨의 勢力이 旺盛하엿습니다 比斯麥이 率先해서 社會政策을 實行하엿습니다 월헬름二世도 貧民의 親友로 自處하고 모든 施設을 하엿섯습니다 그때는 獨逸이 經濟上 自治할 能力이 잇섯습니다 하고 獨逸國民은 본대 質素하엿습니다 함으로 獨逸이 歐米諸國에 比해서 生活費가 低廉하엿던 것이올시다 한데 即今 獨逸은 經濟上 自治力을 거의 일어바렷습니다 萊因地方이 占領되고 또 今年 一月 十一日에 『룰』地方이 占領되엿습니다 또 食料品이 豊富치 못함으로 外國서 輸入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게 되엿습니다 그러함으로 物價가 他國보다 빗사던지 갓던지 할수박게 업습니다 하나 物價가 紙幣標準이엿슬 때에는 外國人들은 生活해 가기가 比較的 容易하엿습니다 엇던 때에는 그저 살다 십히한 때도 잇섯다고 할수도 잇섯습니다 하나 獨逸돈이 넘우도 떨어지고 본즉 獨逸政府에서는 紙幣를 維持해갈수가 업섯습니다 하고 農夫들과 地主들은 紙幣를 밧고는 食料品을 팔지아니하려고 합니다 함으로 不可不 새돈이 나와야 하겟습니다 金價券이 나왓고 大藏省證券이 나왓습니다 이것은 다 米貨를 標準한 것이올시다 弗로 額面이 表示되엿습니다 이것은 꼭 金貨로 報償하겟다는 것이올시다 또 그外에 『렌텐마르크』(地代馬克)이라는 돈이 나왓습니다 이것은 馬克으로 額面이 表示되엿는데 金貨로 報償한다는 것이올시다 해서 即今은 物價를 總히 金馬克으로 計算하게 됨니다

李兄! 우리가 넘우 싸게 산것은 不當利得을 한것이나 맛찬가지라고 말슴하엿습니다 하면 即今은 너희들이 正當利得만 하엿스면 될것 아니겟느냐? 할사람이 잇겟습니다 하나 實狀 말하면 獨逸에 온 우리 留學生은 돈잇는 사람이나 업는 사람이나 거이 다 이 不當利得 即 다시 말하자면 物價가 歐米各國에 比해서 싸다는 것을 만히 計算하고 왓습니다 한데 物價가 猝地에 高騰해지고 본즉 若干 打算이 아니올시다 伯林附近에서 지낼 一個月 學費를 略算하면

每日 朝夕兩食 三圓	一朔	九〇圓
每日 朝飯 五〇	同	一五
室費		一五
授業料		一〇
洋服		一〇
內衣及洋靴		五
合計		一四五圓

上表와 如히 百四十五圓이 됩니다 授業料가 무슨 한달에 十圓이 되겟느냐 몰을이가 잇겟습니다 하나 伯林大學에서 各學期授業料가 法律及其他精神科學에는 五十圓이고 其外實驗科學에는 六十圓이올시다 紙幣는 못바고 米貨나 金價券으로 바다갑니다 우리 中에 한 사람이 物理學을 硏究室에 들어 가시는데 一學期에 八十弗 即 百六十圓을 냇고 伯林商業大學에서는 前學期에 近三百圓돈을 바덧습니다

李兄! 이 一百四十五圓中에는 冊갑은 한푼도 아니들고 洗濯費라든가 煖房費라던가 通信費其他費用은 조금도 아니 들엇습니다 하고 본즉 即今形便으로 하면 伯林大學에서 工夫하려면 每朔 二百圓이 不可缺할 必要費라 하겟습니다 每朔二百圓의 必要費! 物價가 떨어질것 갓지 안습니다 우리 留學生界의 大問題올시다

童謠

우리洞里亭子나무

李慶孫

우리洞里 亭子나무는
쉬영버들 亭子나무
할미꽃에 해만지면
머리풀어 산발鬼神

밧헤기신 아버님께
콩죽동이 이고가라면
제가먼저 할타먹는
늙은버들 쉬영버들

二四、一、六 於釜山

여기는 松都래나

松岳山찬바람
휘넘어오면은
큰길에 오고가는것
모래알강이쑨

松都살님 十年에
코쌔기들은 다알지만
紅葵의한색리는
못더먹어반네

예수敎堂 쇠鍾등아
그만들 울녀라
善竹橋이쒸리
다흔들녀싸질나

二四、一、八 於釜山

新詩

生의幻路

金辰郁

희고검은다림의날낸칼줄은
쉬업시 목숨의줄 베여냅니다
얼못차려그幻路에것는외손은
어느새 生의 終點와노함니다

市內昭格洞百拾八番地서

●當一月廿日(日曜)부터三日間
▲維社날 特別寫眞大公開
實寫 維社週報 全一卷
▲米國維社特作品
大喜劇 女裝의男 全二卷
▲米國維社室前의大作品
連續 豪勇써루 全十八編三十六卷
四回 第七、第八編四卷上場
▲米國維社제ー무遠近大作映畫
西部活劇 여호(狐) 全八卷
次回大映 松竹날 후오라의戀 全十二卷
維社特約 松竹 團成社 電光九五九

트자산는
데第一效
果가多한
구라부구리ー무
クラブ美身クリーム

도모에
(상)도모에護謨總販賣所
京城府漢江通三ノ六六
電話龍山三八五番 振替京城四六二八番
同京城分店
京城南大門通五丁目一
地方注文은前金으로要함

●戀과性에煩悶하는 處女를爲하야 特價金壹圓五拾錢

正文社
東京麻布富士見町六 振替東京五八番

唐麵
陰歷歲末을앞해두고廉價提供하오니切品前速々注文
一等 百斤廿六圓
二等 百斤廿五圓
平壤製 百斤廿四圓
廣興工廠
長電話一〇〇番 振替京城三三六二番

薄利多賣主義도란도(신)最新式機械模樣附(散賣價革命)
復興トランセンド萬年筆特價提供
製造所에서需用家에直接廉賣—都賣問屋과散賣店과—二個所利得을省함

▲도란센도 二十二號(太軸) 安全嵌込잉크止式眞正十四金ペン(責任保證付) 에보나이트軸 (잉크의容量多大하야優히七百字書記可能) 市場價格七圓에것을現價로 大特價金[illegible]圓六十錢

▲도란센도 十三號 安全嵌込잉크止式眞正十四金ペン(責任保證付)(에보나이트軸) 軸徑三分八厘丸 市場價格四圓內外에것을現價로 (實用本位最上品으로堅牢第一) 大特價金貳圓拾錢

▲도란센도 二十三號 新裝置安全잉크止式(最新大流行新型) 에보나이트(에보나이트)軸 軸徑三分八厘丸 眞正十四金ペン(責任保證付) 市場價格五圓五拾錢內外에것을現價로 大特價貳圓八拾錢

▲도란센도 十七號 綠川式眞正十四金ペン(責任保證付)에보나이트軸 精巧螺子付 軸徑三分八厘丸 本品은內部螺旋式으로ペン尖을常히잉크가속에잇는고로使用할際振出의手數를不要 市場價格七圓以上의것을現價로 大特價金參圓八十錢

▲도란센도 二十四號 綠川式眞正十四金ペン(責任保證付)(에보나이트軸) 軸徑三分二厘丸 婦人向의小形細軸綠川式으로 又赤잉크用에도最適品이오 市場價格三圓以上에것을現價로 大特價金貳圓參十錢

誓約
注文에關한注意
萬年筆保存注意

送料……代金注文은振替又는現金書留로 注文時는必히品名及番號를記入하시오

東京市神田區表神保町
萬年筆本舖 トランセンド(도란센도) 廣業社製作所
電話神田四四一一番 振替東京二〇五六〇番